

광주 혁신 시민토론회 4개월 대장정 마무리

정치·청년 일자리 등

10개 주제로 19차례 개최

광주선언문 발표

11개 연합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추진위원회'가 19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제4부 '더 나은 민주주의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4개월여의 대토론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종합보고회를 갖고 광주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언문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나 지역 내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추진위원회는 출범혁명으로 들어선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 광주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출발, 더 나은 민주주의로의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1부에서 4부까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4개월 간 토론 끝에 광주의 혁신을 위해서는 분권과 자치시대를 맞아 광주공동체의 비전을 세우고,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민·관·정 협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광주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참여, 소통, 공유를 기반으로 좋은 도



19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광주를 광주답게 더 나은 민주주의와 혁신의 길'이란 주제로 4개월여의 대토론회 여정을 마무리하는 종합보고회를 가졌다.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시를 만드는 데 연대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3일 첫 번째 혁신 개막토론회에서는 정치, 행정, 노동과 경제, 시민사회, 그리고 도시공간 등 주요 분야에서 혁신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논의된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5개 분야별로 10명 이상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해 더 좋은 정치, 행정, 시민, 노동과 경제, 도시공간을 만드는 구체적 실천과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집담회를 가졌다. 제3부 토론회는 현안 협치

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주의와 자치역량을 높이는 취지에서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5개 의제를 선정해 속의 토론회를 가졌다. 선정된 협의 의제는 청년 일자리 해법, 5·18 원형 복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해법, 도시철도 2호선과 대중교통 해법, 마을에서 아이돌봄 해법, 공공서비스 종사자 활동여건 개선 해법 등이었다.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는 4개월 동안 개막토론회를 비롯해 10개 주제에 대해 토론자만 140명이 참여했으며, 총 19차례의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과정은 자치분권시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와 협치의 훈련이었고, 학습이었으며, 창의적 공론과 자치시대, 더 나은 민주주의와 협치로 광주를 '광주'답게 혁신하는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NGO시민재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후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0년 표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속도

법률 개정안 임시국회 상정 추진...장성군 타당성 용역 예정

지난 10여동안 표류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상생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작업을 위한 용역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추진된다. 법률 개정안에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11개 권역별 심내혈관센터가 있지만 이를 총괄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근거는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여년간 지역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뛰었지만, 법령이나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 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명박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10여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된 데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으며 이제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이 뒷받침되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전남도와 장성군은 곧바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지원의지와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장성군은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장성군과 전남대병원은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호남(장성), 충청(오송), 경성(대구)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삼각형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 연구 클러스터가 미비한 호남에, 특히 장성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두석 장성군수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나주 세지~송현간 개통 도로 위치도



세지 오봉리~봉향 송현리

국지도 55호선 전면 개통

전남도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나주 세지면 오봉리~봉향면 송현리 국지도 55호선 '세지~송현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전면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지도 55호선에 위치한 '세지~송현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은 나주 세지면 오봉리에서 봉향면 송현교차로까지 연장 6.3km다. 이 구간에 교량 3곳, 교차로 8곳을 설치했다.

국비 247억 원·도비 138억 원 등 총 385억 원을 들여 2012년 10월 착공해 5년만에 개통하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트럼프 "북핵·미사일 실질적 안보 위협"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안보전략을 실현하는 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식도 내비쳤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해결'을 최우선 안보 이슈로 꼽은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과는 차별화한 글로벌 안보 위협 전체에 걸친 전략을 공개하면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실은 의미를 갖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8쪽 분량인 NSS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용어가 무려 17차례나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도 걱정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이 핵·생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미국을 향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또 "사거리 확대와 더불어 개수와 형태, 효력이 날로 증강하는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의 귀결점이 어떤 형태가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 수백만 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 대표적 언급이다. 이는 역으로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 新안보전략 구상 발표

- ▶ 신 국가안보전략 주요 골자
- ① 미국 국민과 미국 국토 보호 ② 미국의 번영 촉진
- ③ '힘에 의한 평화' 견지 ④ 미국의 영향력 확대
-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동맹과의 결별이라도 미국은 자립해야
- '경제 안보' 경제적 침략, 사실상 중국의 공세 경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지식 재산권 침해에 단호한 행동 촉구
- '북핵·미사일'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 '북핵 해결'을 최우선 안보 이슈, '북한'이라는 용어가 17차례 등장 북한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의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



'임행진곡' 제창 막은 박승춘 수사 의뢰

보훈처 적폐청산 시동...재입기간 비위 등 조사

국가보훈처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보훈처 차원의 '적폐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입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원근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입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함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

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연합뉴스

김부겸 장관 광주·전남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생 현장의 현안을 듣기 위해 20일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김 장관은 이날 광주시 남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어 전남도청을 방문해 실·국장들과 간담을 하며 도청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전남도의회, 전남지방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 /박정욱기자 jwpark@

무인텔·콘도

- 화순 도곡 온천지구, 3개동 객실 52개
- 대 2980평 건 1050평, 2013년 준공
- 요양병원 연수원 변경작, 감정 70억
- 매 55억, 교환가 010-3605-5000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식~ 하루 2번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야!!!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